

문화플러스



정읍시,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정읍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내년에 총 2억원(국비 1억4천만원, 도비 1천800만원, 시비 4천20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1대당 2천만원씩 10대에 한하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상용화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지난 9월부터 전기자동차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11월,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 개최

김제시가 2017년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소실장과 전문직 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사업 종사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김흥기 여성정책담당으로부터 2016년 까지의 1단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2017년 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공유와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주력사업인 여성·가족친화의 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1-3세대가 한데 어우를 수 있는 공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힐링 거리 김제시 구전동화 울타리 설치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금산보건지소 맑은 뇌 건강교실 운영

김제시 금산보건지소에서는 맑은 뇌 건강교실을 운영해 왔다.

맑은 뇌 건강교실은 2월부터 시작하여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2시간)어르신들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우울척도 검사, 색칠놀이 및 숫자(한글)공부, 그림그리기, 만들기, 숨은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 종이접기, 레크레이션(게임, 노래 등), 수건을 이용한 근력강화 운동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두뇌활동 증진을 통한 치매예방, 운동 및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각종 신체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한 우울증 및 자살예방 지역사회연계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가치 있는 노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는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보건지소를 방문해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보도록 권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 결과 처분 완료

김제시는 연초부터 진행된 2016년 환경오염물질 폐수, 대기 배출업소의 정기점검을 통해 폐수 62개소, 대기 41개소, 공통(폐수+대기) 28개소, 총 131개소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 실태를 확인했다.

김제시청 점검반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 4건, 폐수 무단배출 1건, 대기 회색배출 1건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폐수 기준 초과 3건, 기타 7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김제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받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로 전화하면 전라북도 또는 김제시로 자동연결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전통 도자다기 복원

'복원사업' 결과보고회... 관광상품화 예정 고려청자 향수병 등 80여점 공개

부안군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를 활용해 '천년 전통 도자다기(茶器)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1년간 진행했으며 21일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요지와 진서면 진서리 요지는 국가 사적 제69·70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천년전통의 고려시대 상감청자 제작지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재조명코자 천년 전통 도자다기(茶器)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고려청자로부터 조선 분청사기 및 백자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창조해 낸 다양한 도자유물 속에 숨어 있는 차와 관련된 도구(차탁, 주전자, 병 등) 일체를 전문가들의 학술연구를 통해 추출해내고 관련 도자유물을 3D로 스캔해 복원할 수 있도록 전자도면화하고 이를 부안청자협회 도예가들이 주축이 돼 수개월에 걸쳐 정교하게 복원·제작했다.

올 한해 동안 복원·제작된 도자다기는 약 80여점에 달하며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 공개됐다.

특히 도자다기와 함께 올해 복원된 작품으로 고려청자 향수병이 있으며 청자 향수병에 담을 향수를 세트로



고려청자 복원 다기

개발해 관광상품화 할 예정이다.

'향수(香水)' 하면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혹은 유리와 같은 투명용기에 담겨진 프랑스제 향수를 떠올리는데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이미 귀족이나 특수층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향료를 활용해 멋스러움과 살균·방충 등의 실용적인 기능까지도 겸비해 널리 사용했다.

이처럼 훌륭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고려청자 향수병은 부안청자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진품 청자를 응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청자의 유약 색깔인 '갈을 날 비운 뒤 맑게 갠 신비의 하늘색' 이미지를 형상화한 향수(우후

청천雨後 晴天)를 개발한 상태다.

부안군은 사업 완료 예정인 2017년에 차와 차도구, 향수와 향수병 등이 세트로 혹은 날개로 다양하게 관광상품화가 이뤄지고 이들은 전북도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스토리를 담은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원 개발된 80여점의 도자기 다구와 청자향수병·향수 등 2017년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부안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담은 품격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홈플러스 김제점 '사랑의 연탄나르기' 봉사

홈플러스김제점 나누미 봉사단은 21일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함께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 '사랑의 연탄나르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연탄나르기'는 홈플러스 김제점 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 모금한 기부금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직접 나르며 구슬땀을 흘려 더욱 뜻깊었으며 연탄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올해 연탄값이 올라 추운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는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요즈음 임제를 연계했으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

해 봉사단 모두가 봉사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했다.

정창섭 센터장은 "홈플러스 김제점 나누미 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르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백주현 점장은 "경기가 어려워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뜻 깊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위도면 상왕등도 식수원 개발 성공

7억 2000만원 투입... 연 5만여명 수돗물 공급

부안군은 서해 끝단인 위도면 상왕등도 식수원 개발에 성공해 주민과 탐방객 등 연간 5만여명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환경부 '2016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국비 4억 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2억 3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설 계용역에 착수한 뒤 최근 서해 끝단에 위치한 위도면 상왕등도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관정 1개소 및 물탱크(600톤), 급수전 22개소 및 상수도관 952m 매설로 섬 지역 식수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및 어민, 탐방객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 31세대 48명과 어민 및 탐방객 등 연간 5만여명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해의 수산자원 보호 및 부안군 생산면적에서 직선거리 33km 떨어진 상왕등도와 하왕등도 등의 국토 수호에 필요한 기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범죄·재난 없는 안전행복도시 정읍' 시동

안전통합관제센터 개소 24시간 CCTV 영상관제

정읍시는 범죄 및 재난 없는 안전행복도시 정읍 구현을 위해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안전통합관제센터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24시간 상시 영상정보 감시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국가예산을 신청하여 국비 7억4천8백만원 확보하고 총 사업비 18억7천만원으로 안전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방범, 어민보호, 재난감시 등 600여대의 CCTV 영상관제와 수배차량 등을 신속하게 검출하고 이동경로



정읍시는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개소식을 가졌다.

파악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관계요원과 경찰관이 배치되어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조속한 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재난·재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재난 비용 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차량번호 관독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CCTV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통합관리를 예산절감과 영상정보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능형 관제서비스 도입 및 CCTV 안심비상벨 설치 등 시민생활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농촌자원분야 '우수' 선정

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2016년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자원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농촌지도 분야에서 농업기반조성과 함께 가공 체험 분야의 6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 리더 양성 및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농촌자원분야는 농업인 가공창업 육성, 농촌체험활성화,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작업안전관리, 식생활 보급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농업 농촌의 주체인 농업인의 활력화와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드라이푸드와 지역 농산물 가공업체 20개소를 육성하였고, 농촌교육농장 6개소의 네트워킹으로 팜파티와 체험운영에 노력하였으며, 농촌자원 활용기술 및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163회, 3,500여명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자원분야 평가시 민간유공자로 전북여성농업인 경영분야에서 활동하다된 박정옥 대표가 준스타상을 수상하였고, 전북 6차산업 활성화 부문에서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규자 대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도한 옹동 매당리 매당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우수마을 분야에서 농촌진흥청상을, 6차산업 우수제품 분야에서 모닝팜 양재영 대표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여 농촌자원분야에서 쾌거를 이루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을 2017년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을 위한 공동가공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가공분야 전문교육을 추진해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산물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하고, 농촌교육농장의 농촌 체험 진로탐색 시범운영으로 도시민과 학생에게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featuring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